

간혹 무엇을 연구하는 연구부장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무엇해 展示技術을 연구한다고만 대답하곤한다. 대개의 경우 더 캐묻지는 않고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거리린다. 이쪽에선 번거로움이 덜어져 편하긴해도 한편으론 상대방이 전시기술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이해를 했는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전시기술을 과연 어느정도로 연구하고 있는냐고 자문을 하고선 자신있는 자답이 안나와 고소를 짓는다.

지금의 자리를 맡기까지는 전시기술이 그처럼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展示技術不毛地帶임을 알게되었고 그에따라 전시기술연구개발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국립과학관은 86년으로 발족60주년을 맞게 된다. 즉 내년에 회갑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짧지 않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큰기둥을 이루는 전시기술이 불모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과학관의 전시기술의 불모상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전시기술불모지대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국립과학관은 이공계박물관과 자연사계 박물관이 합쳐진 종합과학박물관이다. 서양에서는 뮤지엄 또는 박물관이란 말이 케케묵은 이미지를 띠다해서 쓰기를 꺼리는 나머지 싸이언스 센터니 과학관이니 하는 이름을 쓰는 수가 많다. 뮤지엄이라는 말과 아주 인연을 끊기가 어려웠던지 익스플로라토orium(샌프란시스코)이라고 끝부분에 일부를 남긴 곳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든간에 박물관으로 취급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도 박물관으로 취급되니 전세계의 박물관 수는 엄청나게 많다. 미국에 있는 과학박물관만도 약 5500 곳이라는 것으로도 세계박물관 수가 어느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PR같아서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박물관 처럼 중요한 기능을 갖는 기관도 흔치 않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선 박물관은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세계최고급의 미술품을 해일 수 없이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불란서의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약 1600만점의 공업제품을 갖고 있는 미국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의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박물관은 연구기능을 갖는점에서 연구소와 비슷하다. 웬만한 연구소는 발똥꿈치도 따를 수 없는 연구형 박물관이 외국에는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과학박물관, 독일(도이치스) 박물관등은 질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국립과학박물관도 自然史 연구에서는 완전히 대학들을 리드한다. 그러나 박물관에서의 연구는 전시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는것이 보통이다. 박물관은 교육기관 못지

展示技術 不毛地帶

李 鍾 秀

(國立科學館 研究部長)

않게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데 주로 전시를 통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에게 여러지식을 보급한다. 학생들을 위한 校外교육에 힘을 쓰는 한편 사회교육기관으로서도 박물관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박물관의 수를 늘리는 것과 병행해서 박물관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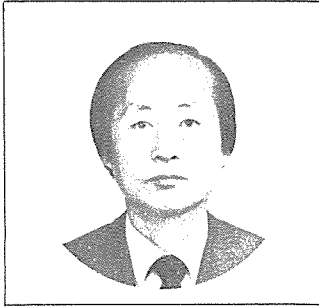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과학박물관의 활동은 특히 미국같은데서 두드러진다. 학교, 일반가정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 가운데 전시기술을 최고로 활용하는 과학박물관이 미국에는 수두룩하다.

앞서 말한바와같이 미국에는 5500곳의 과학박물관이 주로 전시를 통해 과학지식보급에 힘을

기울이면서 향토의 과학기술진흥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과학박물관은 그나라 과학기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말해진다.

세계제패의 야욕을 지녔던 히틀러가 도이치스 뮤지엄육성에 힘을 기울인결과 세계제일의 과학박물관이라는 평판을 얻게 만든바 있었다. 미국, 영국, 서독, 캐나다등에는 국가적인 자랑거리의 과학박물관이 있는데 반해 불란서에는 그렇지 못했다. 수집한 자료수로는 세계적이라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발견의 궁전등 우리 눈으로 는 경탄할만한 과학박물관이 많은데도 그나라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규모와 내용의 과학박물관이 없음을 고민하던 끝에 최근에 완성시킨 것이 빌레트과학박물관이다. 이러한 초일류과학박물관은 보존, 연구, 교육의 세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최고도로 발휘되도록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중에서도 전시기술이 최고 최대로 발휘되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기술의 응용의 위대함에 감탄하도록 해준다. 각국의 민족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전시기술이 발휘되게 되고 그 당연한 귀결로 민족성을 반영한 과학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영국은 재미있는 전시품으로 과학박물관을 채우고, 독일은 중후한 전시품으로 과학박물관을 꾸미고, 불란서는

세련되고 아기자기한 전시품으로 과학박물관을 메우고, 미국은 웅장한 전시품으로 과학박물관의 특색을 만드는등 전시기술은 국민성에 따라 다르게 발휘되는 것이다.

가장 전시기술이 발달된 나라는 미국으로서 할리우드의 영화제작기술이 전시기술에 도입되어 디오라마제작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된다. 전시기술은 요즈음의 첨단기술이 그렇듯이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가 딱 잡혀 있지 않다. 사람에 따라 전시기술의 내용이나 범위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학문으로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어떤 전문가는 전시기술의 범위를 ① 건축 ② 디자인 ③ 조명 ④ 색채 ⑤ 시청각기기 ⑥ 제도 ⑦ 사진 ⑧ 金工·목공·석공 ⑨ 기계 ⑩ 전기 ⑪ 空調 ⑫ 보존과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구사하여서 물리·화학으로부터 첨단기술에 이르는 과학기술의 원리를 전시품으로 표현해내어야 하니까 전시기술은 어렵다는 비명이 나와 마땅하다. 이미 1962년에 미국의 J.H. 카멜에 의해 전시기술(Exhibition Techniques)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뒤 같은 이름의 책은 별로 발간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전시의 과학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을뿐 전시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담은 단행본이 나오지 않았다. 전시기술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도 일부전문가들 사이에 쓰이고 있을 뿐이다.

전시기술을 전문으로하는 대규모의 회사가 적지 않게 있는 일본같은 나라라도 전시기술이 최근에야 겨우 불모상태를 벗어난 형편인 것이다. 우리도 세계에 뒤편이 내놓을 수 있는 과학박물관으로서 綜合科學博物館을 대전에 짓고 있다. 그리고 그 안을 우리민족성이 잘 나타난 독특한 전시품으로 채우기 위해 전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할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진척은 늦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展示技術不毛地帶에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심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국립과학관연구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일층의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